

# 축제-제주의 영원한 콘텐츠, 바람

김 해 곤(섬아트문화연구원소장)

## I. 서론

### 1. 차별화된 콘텐츠가 차별화된 축제를 만든다

제주는 축제의 도시다. 매년 공식적인 축제만 50여개가 개최된다. 마을축제까지 합치면 거의 매일 축제가 열리는 것과 같다.

과거의 축제는 현대사회의 축제와 달리 제사를 신성시하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었고 축제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해소하고 마을의 화합과 번영을 꾀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축제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지자체마다 앞 다퉈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축제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인 행사로 변질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들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속에는 시민을 위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축제를 통해 이색적인 체험과 문화적 갈등을 적서 주기도 한다. 또 정보화의 발달로 서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되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스토리를 구성하며 차별화에 역점을 두기도 한다.

하지만 축제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스토리, 그리고 축제 테마의 가치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제는 이를 통해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카타르시스와 함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키는 것이다. 또 축제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차별화된 도시(지역)를 만들며,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제주의 콘텐츠-심원의 바람

제주는 섬이라는 독특한 지리적 환경과 자연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옛 탐라국으로부터 오늘

에 이르는 역사적 유물들은 물론 토착 산업과 민속, 고유한 정신문화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삼다(三多) 중 사시사철 불어대는 거센 바람은 섬사사람들에게 인고의 세월을 견뎌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강인한 삶을 살도록 했다. 그러나 바람은 더 이상 제주 삶의 재해와 재난만을 안겨주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며, 전력을 생산하고,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살리며 미래의 문화적 자원이기도 하다.

과거 바람은 우리에게 신 또는 종교적 존재로 하늘의 기운, 즉 우주의 숨과 기(氣)를 상징하였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오직 바람만이 역사를 기록했던 것처럼, 마치 한 편의 시를 써 내려가듯, 바람은 언제나 자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바람이 우리에게 부여한 상상의 연금술은 마치 축복의 단비처럼 대지를 적시며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주고 있다.

바람은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친숙하며 이러한 변화무쌍한 바람의 모습과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흥들은 우리에게 늘 다양한 상상적 경험을 가능케 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바람을 활용한 제주바람예술축제는 제주만의 콘텐츠와 그 상징성을 표출해내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조화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며, 예술가들에게 항상 새롭고 심원한 영감을 주는 원천이다.

## II. 본론

바람은 기압의 변화와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물리적인 바람과 사람들의 염원의 바람, 희망의 바람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론에서는 제주바람예술축제와 함께 바람을 주제로 한 ‘부안의 33바람축제’, ‘광주 광산구 꽃바람 축제’와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 바람축제’의 특성과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1. 사례 분석

#### 가. 국내 사례

##### 1) 전북 부안군 33 바람 축제<sup>1)</sup>

2002년부터 3년 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부안군민의 민심을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2005년 10월 27일~30일 까지 4일간 세계최장의 33km의 부안 새만금 방조제에서 ‘제1회 33바람 부안축제’를 개최하였다.

‘33바람 축제’는 새만금방조제(33km)의 길이와 같은 ‘33’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3願(3가지 즐거움)을 슬로건으로 3願이란 건강, 사랑, 성공을 말하며 3樂은 보고, 즐기고, 노는 즐거움과 함께 가을의 풍성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축제를 이끌어 나간다. 또한, 33바람축제를 통해 특색과 전통을 살려 군민 대화합의 발판을 마련하고 관광부안의 이미지 제고 및 7만여 군민의 소망과 희망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영상,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관광도시인 부안군은 축제 행사로 한국인

1) 전북 부안군 33 바람축제 홈페이지(www.barambuan.or.kr).

이 좋아하는 행운의 숫자인 3을 마케팅화 하고, 33km의 새만금 방조제를 상징하는 ‘33바람부 인축제’의 명칭으로 33개의 프로그램을 엮었다.

33km의 방조제 걷기, 소원 성취 띠베떡우기, 33소원성취, 부안출신 이매창의 삶을 패션쇼로 구성한 이화우 ‘흘날릴 제’, 33페스티벌과 국내유명가수들을 초청하여 부안군민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소리·기원·농경문화체험 등 5개 마당으로 꾸미고, 소리 마당에선 개막 축하공연에 이어 13개 읍·면 농악경연, 재즈 페스티벌, 통기타·춤·남도소리 한마당, 전통의 상패션쇼 등이 이어진다. 야간 불꽃쇼, 소원성취 ‘띠베’ 떡우기, 전통놀이·농경·도자기·죽염 체험, 전통 건축전, 특산품전, 33m 김밥 만들기 등도 광장 곳곳에서 펼쳐졌다.

## 2) 광주 광산구 꽃바람 축제 2)

화훼관광단지로 유명한 광주는 국제봄꽃박람회에 이어 화훼산업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화훼관광단지에서 제1회 꽃바람대축제를 개최했다.

광산꽃바람축제를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하여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화훼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신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꽃과 나무를 구경하실 수 있고 화훼관광단지가 단순한 화훼 직판장의 개념을 뛰어 넘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가꿔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약 1만여 평에 달하는 화훼단지 전역에서 다양한 꽃과 선인장, 난, 관엽 등 1천여 종의 식물을 볼 수 있고 각 판매장에서 꾸며 놓은 식물정원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행사장에서는 화초 관리법강의와 아름다운 정원콘테스트, 8도 특산물전도 펼쳐지고 매일 입장객 1천 명에게 허브가 심어진 화분, 꽃삽과 꽃씨 등을 무료로 나눠준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테마공원 콘테스트, 아름다운 꽃사진 콘테스트, 꽃바람 노래자랑 등의 이벤트와 가족단위 봄나들이 인파가 많을 것을 대비해 우리 마을 노래자랑, 손쉬운 꽃 관리법 무료강의 등 관람객을 위한 교육 및 체험장을 마련했다.



행사장 전경

## 나. 해외 사례

### 1)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 바람 축제

본다이(Bondi)는 호주 원주민 언어로 바위에 부서지는 흰 파도라는 뜻이다. 본다이해변가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높아서 서핑의 명소로 유명하다.

2) 광주 광산구 꽃바람 축제 홈페이지([www.flowerdanji.net](http://www.flowerdanji.net)).

행사는 매년 9월 둘째 주 일요일에 개최되고, 장소로는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이다. 다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 연 날리기 축제에는 집에서 만든 최고의 연을 날리는 대회와 어린이들의 바람개비 돌리기, 음악, 무용 공연이 함께 한다.



행사장 전경

## II -2. 제주바람예술축제(Wind Art Festival)

### 가. 1·2·3회 바람예술축제 분석

#### 1) 바람예술축제 태동의 배경

제주의 삼다(三多) 중 사시사철 불어대는 거센 바람은 제주인의 삶에 수많은 재해와 재난을 안겨주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바람은 문화적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풍력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하며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살리는 미래의 문화적 재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재원을 이용한 예술품들은 각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문화충전과 카타르시스를 자아내고 있다.

제주의 바람은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염원을 담아내는 신바람을 담아내고 있다.

제주바람예술축제는 제주만의 콘텐츠와 그 상징성을 표출해내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조화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제주 전역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바람과 함께 독특한 제주의 자연과 제주의 역사를 미술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타 지역과 달리 제주만의 독특한 장소와 역사적인 공간의 이점을 활용하여 공간의 특성에 맞는 주제로 다양한 예술작품과 이벤트적 요소를 끌어내어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예술가들에게 항상 새롭고 심원한 영감을 표출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고자 한다.

#### 2) 2004년 제1회 바람예술축제 개요

##### \* 전시 의의, 목적

제주에 사시사철 부는 바람은 한라산과 360여개의 기생화산과 1,800여 종의 식물을 키워온 제주의 삶과 역사와 자연을 지켜온 주체이다. 제1회 바람예술축제는 바람과 그 속의 존재하는 '생명의 섬'을 미술로서 재해석하고자 했다.

##### \* 전시 주제 - "제주의 보고-생명의 숲"

제주의 숲이 개발 논리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잘리고 밀리며 사라져 가고 있다. 그 숲에 속해 있는 수 없는 생명체와 숲이 만들어 내는 맑은 공기, 생명수는 물론 수 만년 동안 숲이 간



직해온 제주의 이야기와 역사도 함께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은 생명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설정했다.

**\* 행사 세부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복권기금지원사업’으로 진행(문화소의지역을 찾아가는 전국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 행사기간 : 2004년 11월 6일(토)~12월 6일(월) (31일간)
- 행사장소 : 북제주군 남읍리,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서귀포시 서홍동 외돌개, 제주시 이호동해수욕장, 애월읍 저지리 (5개지역순회)
- 출판 작가 : 총129명(해외작가-27명 포함)
- 전시 형식 : 바람의 내용 또는 형식을 담은 전시
- 행사 내용
  - 전시 행사 : 설치, 깃발, 조각, 서예, 서각 등 미술 전 분야
  - 공연 행사 : 퍼포먼스, 판소리 한마당, 댄싱공연, 시낭송
  - 참여 마당 : 오감 미술제(오감 사생대회, 환경 조형물 만들기, 메시지-메시지 전)
  - 언론보도 : 신문보도 32건, 방송보도 12건, 월간지·주간지 3건

**작품 이미지**



**3) 2005년 제2회 바람예술축제 개요**

**\* 행사 배경**

광복60년을 맞아 일본군의 전적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후세들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의 비극을 교육함과 일제잔재 바로 알기와 바로 세우기를 일깨워주는 행사였다. 송악산 해안절벽의 진지동굴은 일본군들이 파 놓은 땅굴로 특수 소형 선박과 어뢰정을 감추어 엄폐용으로 구축된 곳이며, 흔히 알고 있는 ‘자살 특공대’ 보호 기지로 사용되었다. 이 진지동굴(일오동굴)을 미술관으로 만들어 ‘광복60주년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 전적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재평가했으며, 행사 후에는 도민, 학생, 관광객으로 하여

금 역사 체험, 학습과 교육의 장으로 사용되고 전쟁 역사 테마 관광지로 많은 탐방이 이루어졌다.

\* 주제 설명 : ‘結-7호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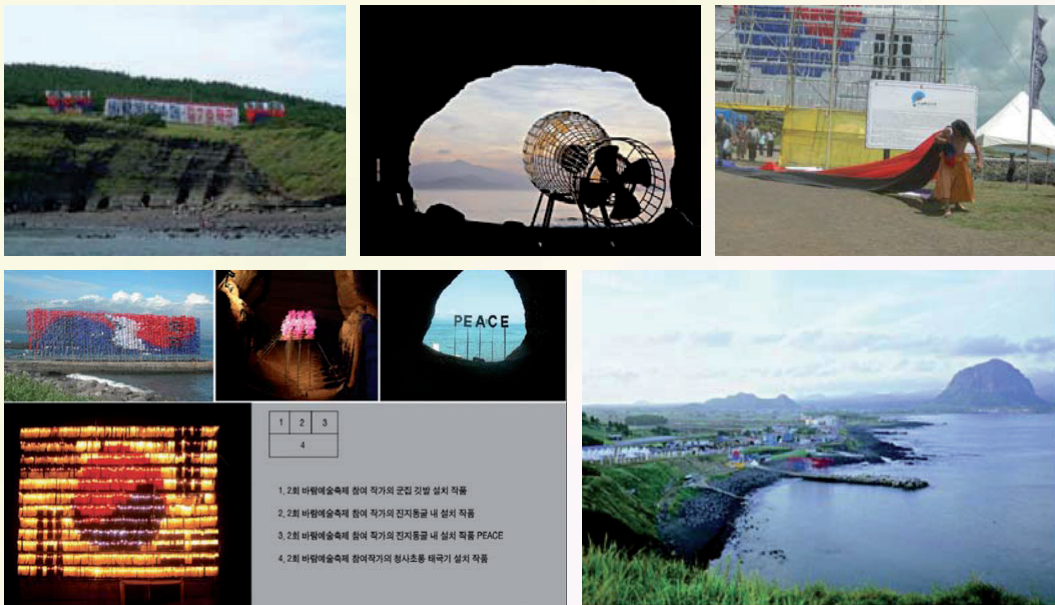
행사 주제인 “결-7호 작전”은 일본군이 대동아 전쟁 중 미군과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제주도에서의 작전명(決-7 號 작전)이다. 연합군의 예상 진격로를 7곳으로 설정하고 그 진격로를 막는 작전명이었으나, 이 행사는 전쟁 작전명 “決-7호 작전”이 아닌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은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의 “結-7호 작전”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 행사 세부 내용

- 이 사업은 광복60주년기념사업기금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으로 진행
- 행사 기간 : 2005년 8월 13일(토)~8월 21일(일) (9일간)
- 행사 장소 : 제주도 남제주군 상모리 송악산 진지동굴 일대
- 출품 작가 : 총 150 명-국내·외 작가
- 행사 구성
  - 설치미술전 - 송악산 진지동굴 내부/설치미술전, 영상 미디어전, 군집 깃발전
  - 깃발미술전 - 국내외 창작 깃발전 (해외 20개국 참가)
- 참여 미당 : 평화 깃발 제작, 학생 평화 미술 실기대회, 퍼포먼스와 위령제
- 언론보도 - 신문보도 70건, 방송보도 8건, 월간지·주간지 3건, 라디오 3건

\* 기대효과

광복 60년 행사를 통한 전쟁의 비극을 교육함과 동시에 평화의 중요성을 세계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 송악산 해안절벽의 진지동굴이 지니고 있던 역사성을 미술로 재해석함으로써 전쟁 역사 테마 관광지로 발굴하고 도민, 관광객에게 역사 교육, 학습의 장을 제공했다.



## 4) 2006년 제3회 바람예술축제 개요

### \* 행사배경

3회 바람예술축제는 물리적인 바람과 함께 제주의 역사 속에 응어리졌던 한과 아픔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 염원을 담아내는 신바람 문화를 전파하고자 했다. 이 행사는 제주 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심 밖에서 산다는 이유로 문화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소외계층을 위해 미술을 통하여 문화로 관심을 표명하고 배려하는 사회봉사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

### \* 행사 주제 - “신바람 여행”

바람은 고난의 바람, 희망의 바람, 슬픔의 바람, 염원의 바람, 신명나는 바람 등이 있다. 과거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웃음과 여유를 주었던 유랑극단을 떠올려보자. 그들의 신명나는 북소리와 팽과리소리에 어깨춤이 절로 나고 온 동네 잔칫날이 되었던 그때, 우리네 가슴 속에 불었던 신바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닌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웃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던 그때의 신바람이 불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제를 설정하였다.

### \* 행사 세부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수 프로그램’ 공모 당선작으로 과거 유랑극단처럼 문화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신바람을 나누고자 기획

- 행사 일시 : 2006년 9월 1일~ 9월 5일 (5일간)
- 행사 장소 : 제주전역을 퍼레이드하면서 11개 지역에서 전시를 개최
- 출품 작가 : 총 43 명
- 전시 형식 : 움직이는 트럭을 이용한 전시
  - 1톤 트럭 3량과 5톤 BOX카 2량에 작품을 설치하여 제주전역을 퍼레이드
  - BOX카 2량 내부를 미술관으로 개조하여 작품전시 - 회화, 조각 작품 전시 행사 구성
  - 전시 행사 : 설치미술, 조각, 회화展
  - 공연 행사 : 음악, 전통음악, 연극, 퍼포먼스
  - 참여 마당 : 신바람 미술제(벽화그리기, 풍선바람개비 만들기)
- 언론보도 - 신문보도 20건, 방송보도 9건, 월간지 주간지 2건

### \* 기대효과

제주도내 외지에는 미술관이 없어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가 거의 없었으나,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전달과 함께 체험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자긍심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 이미지



1. 3회 바람예술축제 참여 작가의 트럭 미술관 작품
2. 3회 바람예술축제 참여 어린이들의 트럭 미술관 내 작품 전시 감상 장면
3. 3회 바람예술축제 참여 작가와 어린이들의 소통
4. 3회 바람예술축제 참여 작가의 트럭 미술관 작품
5. 3회 바람예술축제 참여 어린이들의 트럭 미술관 내 작품 전시 감상 장면

II-3. 제주바람예술축제 발전 방향

▶ 바람예술축제의 현안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충족 조건이 필요하다. 바람예술축제가 2004년~2006년까지 개최하고 그 이후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 바람예술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충당이 힘들다

어느 축제나 예산이 풍부하면 좋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바람예술축제는 2004년~2006년까지 공고롭게 제주도 기금이 아닌, 모두 중앙의 문예진흥기금만을 받아서 행사를 개최했다. 바람예술축제 보급이 아직 미약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의 성과와 파급효과 그리고 수행능력, 축제의 콘텐츠 등을 파악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또 저 예산으로 행사를 치루다 보면 질이 낮아지거나 일회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인적자원 부족(제주지역의 큐레이터 부재)

행사의 규모가 커지면 규모에 맞는 전문가 집단이 구성 되어야 하는데, 제주지역에는 전문 큐레이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기획자 혼자 기획과 실행, 작가 섭외, 작품 관리, 홍보, 마케팅까지 모두 해결해야 하는 처지다. 축제의 성패는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아이템개발과 관리에 있으며, 지속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셋째, 작가발굴의 어려움

바람예술축제는 타 미술행사와 달리 바람이라는 모티브와 바람에 부합한 설치작품 위주의 전 시행사다. 바람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해 작품화하는데 작가들의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전시행사의 생명은 작품의 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회 수를 거듭하면 서 좋은 작품이 제작되고 있으나 제주 지역에 설치미술작가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도 큰 어려움 중의 하나다. 현재 제주도내에 있는 대학은 설치미술과 영상미디어, 디지털 콘텐츠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고 졸업 후 작가들이 취업하기에 급급해 작품의 질이 향상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넷째, 행정의 무관심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의 불만 중 가장 큰 것은 행정의 무관심 또는 행정 하는 사람들과의 마찰일 것이다.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 정치와 문화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논리로서 분배와 선심성 축제지원, 과시적인 축제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문화예술축제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바람예술축제의 성공 가능성과 발전 방향

제주의 바람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훌륭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삼다(三多)중 언제나 변함없는 것이 바람이며, 그 바람은 영원하다. 바람은 청정을 지켜주는 유일한 도구이며, 축제 외에도 문화적·경제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예술축제는 제주바람을 콘텐츠로 이루어지는 특색 있는 행사로 미래지향적이며, 시대를 선도하는 실험적이면서 이벤트적인 축제다. 바람예술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공간과 역사 그리고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

제주도는 타 지역과 달리 수많은 콘텐츠와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 제주의 360여개가 넘는 오름과 700~800여개로 추정되고 있는 진지동굴, 18,000여 신의 신화, 바다의 전설, 오백장군과 설문대 등 무궁무진하다. 진지동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축제를 만들 수 있다. 송악산의 일오동굴과 성산일출봉 해안절벽의 진지동굴, 알뜨르비행장, 수월봉 등 제주전역에 퍼져있는 동굴을 결집하여 바람예술축제를 개최한다면 도·내외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전시된 작품을 작가와 협의하여 철거하지 않고 전시한다면 1년 내내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주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 시대의 정서는 정적이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동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리듬이 있는 쪽으로 이동된지 오래다. 또 각종 미디어와 디지털이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지만 제주 바람예술축제는 오히려 대자연의 순리와 아날로그를 바탕으로 인간의 정서에 부합한 축제를 추구하고자 한다. 오감(五感)과 함께 바람을 담아내는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창조해내는 것이다. 제주를 찾는 사람들은 일상의 공간을 떠나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목적으로 온다. 각종 미

디어와 정보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바람을 눈으로 보고 오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제주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축제의 성공 조건 중 하나는 지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진밀하고 친근감 있게 호흡하는가에 있다.

단순한 이벤트와 음주가무를 벗어나 문화적 수혜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격조 높은 교감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주만의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해야 한다.

진지동굴과 알뜨르비행장, 학살터, 오름, 천연동굴, 신화 등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바람예술축제는 이런 특색 있는 공간을 미술로 재해석하고 행사 후에는 역사+문화 +교육+체험의 장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제주를 포함한 국·내외작가들이 이와 같은 콘텐츠를 훌륭한 문화공간과 창작활동을 만들어감으로 각광받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결론

최근 한국의 지자체에서는 앞 다투어 국제급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이천도자기축제 등 수십억에서 14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콘텐츠와 그다지 유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 회마다 행사를 성공시키려고 인간힘을 쓰는 이유는 문화가 돈이라는 것과 문화가 도시의 품격과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제주의 축제도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은 문화예술축제가 필요하다. 제주적 콘텐츠를 찾아 타 지역과 차별화시키며 그 자체가 제주의 이미지와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가꾸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삿포로는 눈축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얼음 사막에 불과 했다. 이 축제는 오랜 역사와 함께 지역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면서 세계3대축제로 꼽히고 있다. 작은 계기에서 출발한 눈 조각대회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지역문화를 바꾸었고, 행정과 지역민들의 협조는 일본 최고의 축제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매년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려는 기획자의 노력에서 이룩된 결과다. 삿포로는 눈축제를 계기로 동계올림픽과 동계아시안 게임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의 힘이였다. 삿포로는 유난히 겨울이 길고 추우며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10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이듬해 4월까지 눈이 내리고 적설량은 평균 2m에 이른다. 이러한 지역의 단점을 극복하고 매서운 추위와 눈사태에 의한 교통의 단절이라는 열악한 지역적 단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천재(天災)에서 축복의 땅으로 전화위복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위대한 발상의 전환에서 이루어진 결과다.

제주의 사시사철 불어대는 거센 바람은 섬사람들에게 인고의 세월을 견뎌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강인한 삶을 살도록 했으며, 또 바람은 제주 삶의 재해와 재난만을 안겨주는 공포의 대상

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살리며 미래의 문화적 재원이기도 하다. 바람이 부여한 상상의 연금술은 마치 축복의 단비처럼 대지를 적시며,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준다.

바람은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친숙하며 이러한 변화무쌍한 모습과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흥들은 우리에게 늘 다양한 상상적 경험을 가능케 해주기도 한다.

바람은 하늘의 노래요, 유치환 시인의 '깃발' 처럼 우리에게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흐드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이다. 때로는 애수를 담은 백로처럼, 때론 질풍노도로 다가오기도 한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오직 바람만이 역사를 기록했던 것처럼, 마치 한 편의 시를 써 내려가듯, 바람은 언제나 자연의 역사를 기록한다.

이와 같은 콘텐츠는 늘 영원히 우리 곁에서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기획자의 노력과 행정의 직접 참여, 그리고 지역민들의 관심, 축제 현안의 극복 등을 통해 바람예술축제가 보다 더 발전된다면 천재(天災)에서 축복의 땅으로 탈바꿈한 '샛פור의 눈축제'처럼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